

대만 해외시장동향 (2026년 8월)

'26. 8. 31.(월) /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주요내용 목차]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7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 '26.1~7월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 '26.1~7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7월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 '26.1~7월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 '26.1~7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 시장] △ (유치동향) 관광서장,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 최대 930만, △ (일반동향)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관광지출 110억, 10.02% 증가, △ (정책동향)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 유도 위한 '여행지원금' 지급 실시, △ (관광서) 한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서 시장 맞춤형 홍보 추진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 (일반동향) 상반기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1천만, 한국 성장률 가장 높아, △ (트렌드) 계획적 쇼핑 해외여행, 65.6%가 '대만보다 해외가 저렴' 답변, △ (정책) 자연재해로 인한 항공편 취소 관련 여행사 취소수수료 부과 금지, △ (경쟁국) 일본, 유럽, 인도네시아 등지 자연재해로 관광산업 타격, △ (경쟁국-일본) 일본 중소도시 대만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혜택 이어져, △ (경쟁국-홍콩) 'Only In Hong Kong' 글로벌 캠페인 론칭 등, △ (양안관광) 대만 학생 계층, 중국 대륙 교환학생 및 여행 크게 늘어, △ (항공) 한국을 포함한 대만발 해외 노선 신규취항/증편 추세 지속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 (국내여행_정책) 평일 국내여행 활성화 위한 보조금 제도 시행, △ (국내여행_트렌드) '짧은 여행'과 '단기 체류' 일반화, 여행횟수와 지출 늘어, △ (관광업계) 한/일 상품 판매 호조, 대만 관광업계 연간 견조한 실적 전망, △ (항공산업) 대만 국적 항공사 지방발 단거리 노선 및 네트워크 다변화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6.1~7월 방한 대만관광객수/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2.2 방한 항공동향

- '26.1~7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 '26.7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및 주요 분석

2.3 향후 전망: 대만, 대대적 국내여행 활성화 정책사업 실시, 방한시장 영향 주시해야

3. 타이베이지사 '26.8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7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1,765,274	1,613,482	1,281,751	9.4%
2월	1,828,010	1,415,766	1,389,474	29.1%
3월	1,771,921	1,463,304	1,321,971	21.1%
4월	1,755,897	1,475,009	1,347,523	19.0%
5월	1,703,031	1,525,029	1,360,781	11.7%
6월	1,830,537	1,648,672	1,566,852	11.0%
7월	1,997,532	1,733,458	1,572,801	15.2%
1~7월	12,652,202	10,874,720	9,841,153	16.3%
8월		1,735,942	1,547,087	
9월		1,498,878	1,364,271	
10월		1,735,534	1,409,979	
11월		1,535,165	1,360,810	
12월		1,564,197	1,326,383	
계		18,944,436	16,849,683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8.31 현재 '26.7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7월 월별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홍콩
1월 (비중)	687,698 (39.0%)	284,532 (16.1%)	163,616 (9.3%)	97,950 (5.5%)	102,407 (5.8%)	140,151 (7.9%)
2월 (비중)	685,066 (37.5%)	249,539 (13.7%)	180,547 (9.9%)	98,964 (5.4%)	113,774 (6.2%)	165,358 (9.0%)
3월 (비중)	640,025 (36.1%)	334,387 (18.9%)	191,864 (10.8%)	101,612 (5.7%)	86,256 (4.9%)	143,377 (8.1%)
4월 (비중)	641,304 (36.5%)	320,587 (18.2%)	188,206 (10.7%)	107,069 (6.1%)	81,037 (4.6%)	145,462 (8.3%)
5월 (비중)	612,475 (36.0%)	330,614 (19.4%)	188,644 (11.1%)	95,186 (5.6%)	73,824 (4.3%)	138,709 (8.1%)
6월 (비중)	666,434 (36.4%)	327,402 (17.9%)	219,477 (12.0%)	96,220 (5.3%)	85,937 (4.7%)	139,453 (7.6%)
7월 (비중)	741,083 (37.1%)	319,827 (16.0%)	247,477 (12.4%)	109,116 (5.5%)	102,452 (5.1%)	147,592 (7.4%)
(a) '26.1-7월 (비중)	4,674,085 (36.9%)	2,166,888 (17.1%)	1,379,831 (10.9%)	706,117 (5.6%)	645,687 (5.1%)	1,020,102 (8.1%)
(b)'25 비중*	35.5%	17.1%	9.7%	6.4%	5.4%	8.6%
(c)'24 비중*	35.6%	16.4%	8.5%	7.5%	6.7%	7.1%
(d)'23 비중*	35.8%	14.9%	8.1%	7.2%	6.6%	6.3%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아웃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7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 대만의 7월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1,997,532명으로 전년 동기(1,733,458명) 대비 15.2% 증가하였음. 7월은 여름방학 및 휴가철로 성수기를 맞아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가 연중 가장 많았음. 1~7월 누계로는 12,652,202명으로 전년 동기(10,874,720명) 대비 16.3% 증가하였음
- 국가별로는 일본이 1~7월 4,674,085명으로 3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만인의 일본 여행에 대한 높은 선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방일 대만 관광객 수는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하며 월별 관광객 수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음
- 두 번째 해외여행 목적지는 중국으로, 1~7월 대만 아웃바운드 수는 2,166,888명, 비중은 17.1%이었음. 한국은 대만 아웃바운드 목적지 3위이며, 1~7월 대만 아웃바운드 수 1,379,831명으로 비중은 10.9%를 차지하였음. 7월 한국을 목적지로 한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247,477명으로 전월 대비 12.8% 증가하며 단일 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7월 월별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723,375	651,078	589,961	11.1%
2월	625,608	699,158	648,348	-10.5%
3월	883,061	778,576	811,608	13.4%
4월	758,613	751,149	610,146	1.0%
5월	692,784	710,933	581,748	-2.6%
6월	611,148	606,346	571,510	0.8%
7월	607,534	586,226	539,454	3.6%
1~7월	4,902,123	4,783,466	4,352,775	2.5%
8월		673,102	616,922	
9월		601,339	575,455	
10월		757,860	661,115	
11월		812,236	747,800	
12월		946,544	903,619	
계		8,574,547	7,857,686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8.31 현재 '26.7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7월 월별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홍콩/마카오	일본	한국	미국	베트남
1월 (비중)	81,266 (11.2%)	120,310 (16.6%)	130,755 (18.1%)	56,056 (7.7%)	31,044 (4.3%)
2월 (비중)	90,056 (9.3%)	70,337 (11.2%)	96,313 (15.4%)	50,923 (8.1%)	41,169 (6.6%)
3월 (비중)	98,865 (11.2%)	166,393 (18.8%)	94,334 (10.7%)	79,914 (9.0%)	57,327 (6.5%)
4월 (비중)	116,758 (15.4%)	109,235 (14.4%)	82,621 (10.9%)	72,374 (9.5%)	36,859 (4.9%)
5월 (비중)	93,219 (13.5%)	117,617 (17.0%)	78,315 (11.3%)	60,252 (8.7%)	34,768 (5.0%)
6월 (비중)	90,731 (14.8%)	96,607 (15.8%)	43,437 (7.1%)	74,612 (12.2%)	39,958 (6.5%)
7월 (비중)	122,193 (20.1%)	80,557 (13.3%)	46,322 (7.6%)	61,099 (10.1%)	41,261 (6.8%)
(a)'26.1~7월 (비중)	693,088 (14.1%)	761,056 (15.5%)	572,097 (11.7%)	455,299 (9.3%)	282,386 (5.8%)
(a)'25 비중*	15.3%	17.3%	11.9%	8.3%	5.0%
(a)'24 비중*	16.7%	16.8%	12.8%	8.3%	4.7%
(a)'23 비중*	18.5%	14.3%	11.5%	8.2%	5.9%
구 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중국
1월 (비중)	28,113 (3.9%)	33,064 (4.6%)	33,365 (4.6%)	68,517 (9.5%)	46,690 (6.5%)
2월 (비중)	27,312 (4.4%)	21,584 (3.5%)	26,968 (4.3%)	61,602 (9.8%)	58,062 (9.3%)
3월 (비중)	42,966 (4.9%)	47,795 (5.4%)	46,138 (5.2%)	79,900 (9.0%)	46,864 (5.3%)
4월 (비중)	30,013 (4.0%)	38,974 (5.1%)	43,936 (5.8%)	72,629 (9.6%)	49,794 (6.6%)
5월 (비중)	32,022 (4.6%)	36,084 (5.2%)	35,375 (5.1%)	62,800 (9.1%)	58,655 (8.5%)
6월 (비중)	21,925 (3.6%)	31,240 (5.1%)	26,444 (4.3%)	55,379 (9.1%)	50,114 (8.2%)
7월 (비중)	19,071 (3.1%)	21,173 (3.5%)	29,041 (4.8%)	49,189 (8.1%)	58,869 (9.7%)
(a)'26.1~7월 (비중)	201,422 (4.1%)	229,914 (4.7%)	241,267 (4.9%)	450,016 (9.2%)	369,048 (7.5%)
(a)'25 비중*	4.5%	5.2%	4.8%	7.3%	7.4%
(a)'24 비중*	5.5%	5.7%	5.1%	5.9%	5.6%
(a)'23 비중*	6.7%	7.2%	6.1%	5.9%	3.5%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인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7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 대만의 7월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607,534명으로 전년 동기(539,454명) 대비 3.6% 증가하였음. 1~7월 누적치는 4,902,123명으로 전년 동기(4,783,466명) 대비 2.5% 증가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만 정부가 설정한 연간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목표 1천만 명 달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 관광서는 환율 변동,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한 유가 상승 등으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관광객 수 목표보다 체류 기간, 관광지출 등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 1~7월 기간 중 대만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일본으로 761,056명이며 15.5% 비중을 차지하였음. 2위는 홍콩/마카오였으며, 693,088명이 방문하여 14.1%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3위는 한국으로 572,097명이 방문하며 11.7% 비중을 차지하였음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시장

○ (유치동향) 관광서장,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원 최대 930만

- 관광서장, 8.20일 국내관광보조금 및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 인센티브 사업계획 관련 인터뷰에서, 총통과 행정원장이 올해 1천만 명의 외래객 유치 목표 달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900만에서 930만 정도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 언급
- 일부 영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예로 대만국제항만공사는 올해 상반기 대만 입항 국제 크루즈는 332척, 62만 8600명의 승객을 수송하여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하였고 연간 규모는 119만여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가 전망된다고 밝힘
- 한편, 올해 상반기 대만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429만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의 증가를 보인 반면, 동남아시아 관광객은 9.7%라는 큰 폭의 성장률 기록. 국가별로는 필리핀(28.1%), 인도네시아(13.6%), 베트남(11.1%) 순

○ (일반동향)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관광지출 110억, 10.02% 증가

- ‘25년 대만 방문 외국인관광객 857만여명이 지출한 금액은 USD110

억3,300만으로(항공료제외), 전년대비 10.02% 증가, 이는 관광객수 증가율 보다 약 1%p 높은 수치로, 인바운드 관광산업이 질적 성장의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관광서는 자평

- 한편, 지난해 대만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1일 평균 지출액은 USD185.14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고, 이들은 평균 6.95박 체류하고, 46.74일전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개별여행객수 76.4%이며 여행정보 습득채널은 SNS와 입소문, 가장 좋아하는 여행 콘텐츠는 ‘야시장’ 인 것으로 조사됨

○ (정책동향)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 유도 위한 ‘여행지원금’ 지급 실시

- 관광서는 ‘ 25년 기준 대만을 재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이 42.25%에 달하며, 이들 재방문객의 증대를 위한 특별사업 “國際旅客重遊加碼(국제관광객 재방문 확대)” 실시 발표
- ‘ 23.1.1. 이후 대만방문 경험있는 외국인이 재방문 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NT\$5,000, 동반자 대상 NT\$3,000 총 NT\$8,000의 여행지원금을 지급(사업 기간: ‘ 26.10.10~’ 27.3.31)

* 관광서는 ‘ 23. 5월~’ 25. 9월 기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추첨으로 NT\$5,000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실시(총 지급예산 NT\$25억, 한화 1,050억원)

○ (관광서) 한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서 시장 맞춤형 홍보 추진

- (한국) 관광서, 23개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여행사, 호텔 공동, 최근 항공편 증가가 뚜렷한 부산서 B2B 및 B2C 행사 개최. “Taiwan Never Closed” 라는 슬로건 아래, ‘낮에는 커피, 밤에는 술 한잔’ 이란 테마로 체험 행사 등을 진행. 이번 행사는 특히 대만의 4개 국적항공사가 모두 참가하여 B2B 상담과 홍보부스를 운영, 관광서는 부산발 대만 방문 단기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8.6~10)
- (태국) 관광서는 태국 쇼핑몰에서 LGBTQ+ 테마의 홍보행사 개최. 수백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태국 관련 인플루언서 4명 초청, 대만 LGBTQ+ 친화 여행 콘텐츠와 경험을 공유(8.9)
- (인도네시아) 관광서는 항공사, 여행사, 관광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대만 관광 대표단’ 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수라바야에 파견, 연말연시 방한단체 유치를 위한 B2B & B2C 행사 개최(8.12~16)

- (싱가포르) 관광서, 70여개 기관, 111명으로 구성된 대만 관광대표단과 NATAS 대만홍보관을 운영, 역시 “Taiwan Never Closed” 라는 주제로 ‘24시간 활기 넘치는 대만의 관광 매력’ 을 홍보. 주요 소재는 대만산 커피, 대만식 조식 등 미식에 집중돼 있었으며, 박람회 후 자체 B2B 행사도 개최(8.21~23)

대만 아웃바운드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 (일반동향) 상반기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1천만, 한국 성장률 가장 높아

- 상반기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16.56% 증가한 1천만명, 역대 최고치 기록. 분포를 보면 일본이 전년 동기 대비 20.17% 증가한 393만명, 해외여행 시장의 36.91% 차지, 중국 본토와 한국이 각각 17.34% 및 10.63%를 구성하여 2위와 3위를 기록. 상위 3개국의 전체 해외시장에서 60% 이상 차지
-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한국으로, 113만 명이 방문, 전년 동기 대비 35.94%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66.5%가 여성층으로 이들의 한국 선호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장거리 노선의 성장세도 눈에 띄는 변화로 뉴질랜드 23.69%, 이탈리아 20.11%의 성장은 아시아 전체 시장 성장률 17.02%를 넘어섬
-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9.64%, 30대가 19.59%로 해외여행 핵심소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전체 여행자의 34.6%가 중국 본토를 방문해 유일하게 일본을 앞섰음
- 평균 해외 체류기간은 6.95박으로 지난해 7.08박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5~7박 여행비중이 점차 증가, ‘일주일 여행’ 패턴이 시장에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음. 홍콩/마카오는 주말여행지로 자리매김했고, 미주의 평균 체류기간은 17.46박으로 가장 길었고, 중국 본토는 8만명 이상이 31~60박을 체류, 장기 거주자가 다수 포함되었음을 나타냄

○ (트렌드) 계획적 쇼핑 해외여행, 65.6%가 ‘대만보다 해외가 저렴’ 답변

- 동방일보(東方日報)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대만인 해외지출이 최초로 NT\$1조를 돌파했으며, 20~64세 소비자의 58.8%가 해외여행 실시, 그중 20.2%가 2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알려짐
- 응답자의 82.8%는 해외 쇼핑이 대만 내 소비를 대체하며, 65.6%가

대만보다 해외 현지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1위 과자, 사탕, 비스킷(78.7%), 2위 지역 특산식품(51.4%), 3위 의약품(40.8%), 건강식품(39.3%) 순임

○ (정책) 자연재해로 인한 항공편 취소 관련 여행사 취소수수료 부과 금지

- 최근 일본 구마모토 지진 후 관련 항공편 변경 및 취소에 대해 여행사가 수수료를 부과하자 관광서는 수수료 부과 금지 및 위반시 NT\$1만~5만 벌금 처분 공문 발송

○ (경쟁국) 일본, 유럽, 인도네시아 등지 자연재해로 관광산업 타격

- (일본) 7.28일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규슈지역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진직후부터 8.10일까지 구마모토 현 내 숙박 예약 취소액은 약 20.6억만 엔에 달하며, 피해가 없는 인근 지역의 예약 취소 건수도 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유럽) 유럽의 전례 없는 폭염과 동시에 가뭄과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경제적 손실, 관광산업 타격, 식료품 가격 상승 등 유발, 특히 여름 관광 성수기 불구 유럽 각국의 관광수입 급감을 초래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8.15일 인도네시아 동부 관광지 플로레스섬 해안에서 7.7 규모의 지진 발생, 40여명 사망

○ (경쟁국_일본) 일본 중소도시 대만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혜택 이어져

- 대만 가오슝-일본 아키타현, 상호 관광 혜택 프로그램 추진. 9.1일부터 아키타현은 가오슝 시민 대상 지정 관광명소 특별할인 혜택 제공
- 6년만에 도쿄 나리타 공항 환승 & 숙박 프로그램 재운영(9.15~). 무료 가이드투어가 재운영되며, 3~6시간 소요되는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테마별로 제공

○ (경쟁국_홍콩) ‘Only In Hong Kong’ 글로벌 캠페인 론칭 등

- 홍콩관광청은 전세계인들에게 홍콩의 특색과 일상을 감각적으로 소개하면서 직접 경험해 보도록 권유하는 주제의 홍보 캠페인 ‘Only in Hong Kong’ 실시. 16개의 컬러와 홍보 콘텐츠를 매칭하여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노렸으며, ‘일상, 장대한 볼거리’, ‘동서양의 조화, 최고를 추구하다’ 등의 슬로건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소개
- 동시에 홍콩정부는 홍콩의 국제 항공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발표. 공항을 비즈니스,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저활동이 통합된 랜드마크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공항섬과 주변 인공섬에 요트 정박시설, 부대시설, 수상레저공간 등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 예정

○ (양안관광) 대만 학생계층, 중국 대륙 교환학생 및 여행 크게 늘어

- 지난해 교환학생 및 학생교류로 중국대륙을 방문한 대만 학생은 총 8,972명으로 '19년의 1,729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특히 약 64%를 차지하는 대학생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당이 대만 학생층 대상 정치적 의도로 저가의 교류 및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
- 최근, 중국 공산당은 대만 학생증을 소지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2026 중국 문화 연구 캠프, 쓰촨' 프로그램을 NT\$5,900(한화 약 26만원)에 관측하기도 했으며, '통일지지 여름 캠프'의 경우 대만 학생 대상 현지 체류비용 일체를 제공하기도 함
-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활동은 현지 여행 참가자를 공산당의 협력자로 포섭하기 위함이라고 비판

○ (항공) 한국을 포함한 대만발 해외 노선 신규취항/증편 추세 지속

[한국 노선]

- (대한항공) 타이중-인천 노선 재개(10.25~, 매일)
- (에어로케이) 타이베이-청주 노선 증편(8월 한시, 주 3회 증편)
- (이스타항공) 타이베이-부산 노선 8~10월 증편(8.29~10.24)
- (중화항공) 타이베이-부산 노선 증편(주 4회 → 7회) 및 추석 연휴 및 가오슝-김포 노선 재개 확정(10.1~, 주 3회)
- (에바항공) 타이베이-부산 노선 7~8월 증편 및 추석 연휴 대비 타오위안-김해 노선 증편(9.2~10.24)
- (스타럭스) 타이중-부산 노선 여름 성수기 한시 증편(7.16~8.20)

[해외 노선]

- (중화항공) 타이베이-시애틀 취항(7.14~, 주 5회) 및 타이중-오키나와 취항(7.21~, 매일)
- (스타럭스) 타이베이-시애틀 신규 취항(8.16~, 주 3회), 타이베이-프라하 신규 취항(8월~, 주 3회), 타이중-삿포로 신규 취항(10.2~, 주 5회)
- (타이거항공) 가오슝-오카야마 신규 취항(10.27~, 주 3회) 및 푸꾸옥,

다낭 등 동남아 하계 휴양지 공급 확대

- (기타) 델타항공 타이베이-라스베이거스 CES 특별편 운항 예정('27.1.5), 저장룽항공 타이중-청두 신규 취항(7.28~, 주 2회)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 (국내여행_정책) 평일 국내여행 활성화 위한 보조금 제도 시행

- 관광서, 평일여행 장려 위한 평일 숙박비 최대 NT\$2,000, 생일 축하 숙박권 NT\$1,200, 놀이공원 입장권 지원 등 패키지 프로그램 9월부터 실시 발표, 최대 혜택 NT\$6,700까지 가능

<관광서 제공 국내여행 혜택 즐기기 방안>

구분	일반지역 「숙박+놀이공원」	도시지역 「숙박+놀이공원」	Taiwan PASS*
총 혜택금액	NT\$5,200	NT\$5,700	NT\$6,700 상당
평일 숙박	NT\$2,000 1박 NT\$800 + 2박 NT\$1,200	NT\$2,500 1박 NT\$1,000 + 2박 NT\$1,500	NT\$3,500 1박 NT\$1,500 + 1박 NT\$800 + 2박 NT\$1,200
놀이공원 숙박	NT\$2,000 1박 NT\$800 + 2박 NT\$1,200	NT\$2,000 1박 NT\$800 + 2박 NT\$1,200	NT\$2,000 1박 NT\$800 + 2박 NT\$1,200
생일 쿠폰	NT\$1,200	NT\$1,200	NT\$1,200
교통비			Taiwan PASS 연계

* 대만 여행용 교통+관광 통합 패스

- 지난해 계획이 수립되어 연초 실시를 계획했으나, 최근 예산이 승인 되면서 9.15일부터 실시 결정. 총예산 규모는 NT\$34.6억이며, 관광서는 사업 추진을 통해 연간 440만 건의 국내여행 및 NT\$374억 관광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국내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일부 숙박시설 이용료 인상 등의 부작용도 뒤따름을 비판

○ (국내여행_트렌드) ‘짧은 여행’ 과 ‘단기 체류’ 일반화, 여행횟수와 지출 늘어

- 지난해 1인당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11.65회로 증가했으며, 이중 80%가 당일치기 여행이었으며, 1인당 여행 1회 평균 지출액은 NT\$2,279, 국내관광 지출액은 총 NT\$5,64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역대 최고치 기록

○ (관광업계) 한/일 상품 판매 호조, 대만 관광업계 연간 견조한 실적 전망

- (여행사) 라이온여행사, 상반기 재무실적 발표, 한국과 일본 중심 해외 관광수요 증가에 힘입어, 주당 순이익 NT\$7.27의 호실적 발표. 동시에 하반기는 인센티브 여행 중심의 수요증가도 전망
- (항공사) 타이거에어 역시 평균 탑승률 91.3%를 기록하며 상반기 매출 사상 처음 NT\$100억(NT\$103억) 돌파, 전년 대비 22.1% 증가 발표. 인기 목적지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서울, 부산, 오카야마 순

○ (항공산업) 대만 국적 항공사 지방발 단거리 노선 및 네트워크 다변화

- 스타릭스항공(타이중-부산 취항), 타이거항공 등 수도권(타오위안) 포화 해소와 중남부 수요 흡수를 위해 타이중·가오슝발 직항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 중
- 중화항공은 10월부터 가오슝-김포(주 3회) 노선 운항 재개를 확정하며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노선망 정상화에 박차
- (기타) 대만 항공당국이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의 제안을 수용하여 대만 공역 내 신규 단축 항로를 10월 1일부터 공식 운영하기로 결정함. 기존 항로 대비 약 31km 단축되어 편당 비행시간 2~4분 단축 및 대만 경유 항공편의 연료 절감(연간 약 24억원) 효과가 기대됨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026.1~7월 월별 방한 대만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a/b 증가율	'26년 전체 방한객수(c)	a/c 비중
1월	166,779	135,434	23.1%	1,265,658	13.2%
2월	183,753	120,015	53.1%	1,431,472	12.8%
3월	192,138	140,017	37.2%	2,045,992	9.4%
4월	192,854	151,613	27.2%	2,027,860	9.5%
5월	191,795	150,272	27.6%	1,945,809	9.9%
6월	223,127	164,885	35.3%	1,993,128	11.2%
7월	260,532	199,280	30.7%	2,093,223	12.4%
1~7월	1,410,978	1,061,516	32.9%	12,803,142	11.0%
8월		191,565			
9월		154,992			

10월		161,049			
11월		158,374			
12월		163,918			
계		1,891,414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 2026.1~7월 한국-대만 방문객수

구 분	대만→한국	한국→대만	계
1월	166,779	130,755	297,534
2월	183,753	96,313	280,066
3월	192,138	94,334	286,472
4월	192,854	82,621	275,475
5월	191,795	78,315	270,110
6월	223,127	43,437	266,564
7월	260,532	46,322	306,854
1~7월	1,410,978	572,097	1,983,075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26.1월	166,779	78,932 (47.3%)	44,852 (26.9%)	12,046 (7.2%)	23,820 (14.3%)	2,074 (1.2%)	4,812 (2.9%)
'26.2월	183,753	82,277 (44.8%)	52,909 (28.8%)	13,299 (7.2%)	24,158 (13.1%)	3,796 (2.1%)	6,683 (3.6%)
'26.3월	192,138	76,238 (39.7%)	62,197 (32.4%)	13,299 (6.9%)	26,152 (13.6%)	3,141 (1.6%)	4,445 (2.3%)
'26.4월	192,854	78,191 (40.5%)	67,222 (34.9%)	12,855 (6.7%)	25,096 (13.0%)	3,428 (1.8%)	4,042 (2.1%)
'26.5월	191,795	73,857 (38.5%)	68,371 (35.6%)	13,227 (6.9%)	26,045 (13.6%)	3,081 (1.6%)	3,308 (1.7%)
'26.6월	223,127	85,726 (38.4%)	81,361 (36.5%)	14,681 (6.6%)	27,514 (12.3%)	3,926 (1.8%)	4,410 (2.0%)
'26.7월	260,532	94,449 (36.3%)	96,119 (36.9%)	14,696 (5.6%)	26,626 (10.2%)	3,720 (1.4%)	5,139 (2.0%)
'26.1~7월 누계	1,410,978	569,670 (40.4%)	473,031 (33.5%)	93,693 (6.6%)	179,411 (12.7%)	23,166 (1.6%)	32,839 (2.3%)
'25년 전체**	1,891,414	884,121 (46.7%)	509,136 (26.9%)	144,491 (7.6%)	211,121 (11.2%)	65,143 (3.4%)	41,385 (2.2%)
'24년 전체*	1,473,908	722,453 (49.0%)	361,863 (24.6%)	123,098 (8.4%)	133,256 (9.0%)	73,467 (5.0%)	27,991 (1.9%)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참고] ()은 전체 입국루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 (무안) 591명, (양양) 4명 ** (무안) 0명, (양양) 2명

○ 주요 분석

- 2026년 7월 방한 대만관광객 수는 260,532명으로 전년 동기(199,280명) 대비 30.7% 증가하였음. 방한 대만 관광객은 ‘26년 매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1~7월 누적 방한객은 1,410,978명으로 지난 해 동기 대비 32.9% 증가하였음
- 전월 방한 대만 관광객 수가 최초로 2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7월에는 전월 대비 16.8% 증가하며 연중 최대치인 26만 명을 기록하였음.
- 2026. 7월 방한 대만관광객 수의 각 공항별 이용 비중은 인천 36.3%, 김해 36.9%, 김포 5.6%, 제주 10.2%, 대구 1.6%, 청주 2.0%로 나타남. 대만관광객은 지방공항을 활발히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특히 김해공항은 신규 취항 및 대규모 증편 등 항공 공급 증가에 힘입어 입국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7월에는 인천공항 비중을 넘어 서며 최대 입국 관문 역할을 함.

2.2 방한 항공동향

○ ‘26.1~7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단위 : 편)

구 분	‘26년(a)	‘25년(b)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월대비 증가율
1월	2,837	2,486	14.1%	3.4%
2월	2,654	2,215	19.8%	-6.5%
3월	2,902	2,381	21.9%	9.3%
4월	2,871	2,274	26.2%	-1.1%
5월	2,962	2,377	24.6%	3.2%
6월	2,794	2,227	25.5%	-5.7%
7월	2,898	2,440	18.8%	3.7%
1~7월	17,020	13,960	21.9%	-
8월		2,460		
9월		2,285		
10월		2,622		
11월		2,628		
12월		2,745		
계		29,140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 '26.7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단위 : 편)

구 분	'26.7월	'26.6월	'26.5월	'26.4월
타이베이-인천	675 (-4.9%)	710 (-7.1%)	764 (1.9%)	750 (-1.1%)
타이베이-김해	900 (16.9%)	770 (-1.2%)	779 (3.6%)	752 (-0.7%)
타이베이-대구	58 (-3.3%)	60 (-3.2%)	62 (-3.1%)	64 (3.2%)
타이베이-제주	238 (-0.8%)	240 (-1.2%)	243 (-0.4%)	244 (-1.6%)
타이베이-청주	92 (0.0%)	92 (-25.8%)	124 (4.2%)	119 (-32.8%)
타이베이(송산)-김포	120 (0.0%)	120 (-3.2%)	124 (3.3%)	120 (-3.2%)
가오슝-인천	181 (0.0%)	181 (0.6%)	180 (-)	180 (-3.2%)
가오슝-김해	181 (1.1%)	179 (-3.8%)	186 (4.5%)	178 (36.9%)
가오슝-김포	92 (-2.1%)	94 (-6.0%)	100 (6.4%)	94 (-9.6%)
가오슝-제주	67 (-1.5%)	68 (-4.2%)	71 (6.0%)	67 (-5.6%)
타이중-인천	182 (2.2%)	178 (-28.2%)	248 (3.3%)	240 (-3.2%)
타이중-제주	16 (0.0%)	16 (-15.8%)	19 (11.8%)	17 (-)
타이중-김해	78 (11.4%)	70 (59.1%)	44 (4.8%)	42 (950.0%)
화롄-인천	18 (12.5%)	16 (-11.1%)	18 (12.5%)	16 (-)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참고] ()는 전월 대비 증가율

○ 주요 분석

- 2026년 7월 한-대만 운항편수는 2,898편으로 전년 동기(2,440편) 대비 18.8% 증가하였으며 전월(2,794편) 대비로도 3.7%(104편) 증가함. 이는 7월이 6월보다 하루가 긴 자연 증가 요인과 함께, 하계 성수기를 맞아 항공사들의 김해(부산) 노선 중심 신규 취항 및 대규모 증편이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타이베이-김해 노선은 전월 770편에서 900편으로 130편(16.9%) 증가함. 이는 6월 스타럭스항공 취항에 이어, 7월부터 에바항공(7~8월 한시 주 5회 증편) 및 중화항공(기준 주 4회 운항 노선을 주 7회로 증편) 등 대만 주요 항공사의 적극적인 공급 확대가 반영된 결과임
- 타이중-김해 노선 역시 스타럭스항공의 6월 신규 취항에 더해 하계 성수기 한시 증편(주 3회 → 주 4회, 7.16.~8.20.)이 더해지며 전월 70편에서 78편으로 11.4%(8편) 증가함. 타이중·타이베이·가오슝발 김해 노선의 합산 운항편 수는 전월 1,019편에서 1,159편으로 13.7%(140편) 급증하며 영남권 공급 확대 흐름을 견인함
- 반면 타이베이-인천 노선은 675편으로 전월 대비 4.9%(35편) 감소해

5월 이후의 조정세가 이어진 반면, 가오슝-인천(181편), 타이베이(송산)-김포(120편), 타이베이-청주(92편), 타이중-제주(16편) 등은 전월 수준을 유지함. 타이중-인천(182편, +2.2%) 및 화롄-인천(18편, +12.5%) 노선은 소폭 반등함

- 2026년 1~7월 누계 한-대만 운항편수는 19,918편으로 전년 동기 16,400편 대비 21.5% 증가해, 전체적인 양국 간 항공 공급 확대 기조는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8월 이후에도 에어로케이의 타이베이-청주 노선 한시 증편(8월 주 3회 증편), 이스타항공의 타이베이-부산 노선 한시 증편(8.29.~10.24. 주 4회 증편), 10월 중화항공의 가오슝-김포 노선 재개(주 3회, 10.1~) 등이 예정되어 있어 지방공항 및 직항노선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2.3 향후 전망

○ 대만, 대대적 국내여행 활성화 정책사업 실시, 방한시장 영향 주시해야

- (통계적 분석) 대만 관광서는 상반기 아웃바운드 사상 처음 1천만명 돌파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성장률이 약 36%로 가장 가파르다고 언급.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국의 증가율은 1위 목적지인 일본과 비교 시 그 편차가 평균 두 자릿수(16.0%p, 5.3%p~22.3%p)로 매우 큰 편이나, 7월 들어 한국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하였으나 방학맞이 가족관광객의 일본행이 크게 늘면서 그 격차는 2.6%p로 매우 낮아진 상태이며, 8월 역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단, 7월말 일본 구마모토현 대지진이 일본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며, 이는 대만관광서의 8월 통계 발표 후 확인 가능)
- (시장환경적 분석) 대만의 2분기 GDP 성장률 12.92%, 상반기 13.72% 증가로 역대 최고치 기록, 연간 39년 만의 최고인 11.05% 증가 전망 상황. 근로자 평균 연소득 역시 역대 최대인 NT\$763,900(한화 약 3,400만 원) 기록, 주식시장 활황에 상반기 노동기금 수익 NT\$2.2조, 1인당 NT\$11만(한화 약 500만원) 배당, 초과 세수로 내년 1월 1인 NT\$1만(한화 약 450만원)의 보편적 현금 지급 등 일반 가계 수입 증가 추세로 인한 소비지출 확대가 여행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다만, 대만 정부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9월부터

대대적인 보조금 지급제도 실시, 이에 맞춰 지자체 개별 보조금 제도 운영, 여행업계 추가 여행상품 및 숙박 할인 등 프로모션 실시로 9월 이후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시장이 어느 정도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 중

- (여행업계 방한상품 현황 분석) 대만 주요 여행사들은 해외여행 상품 판매 호황으로 상반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고, 핵심 상품군은 일본과 한국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위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여행업품질보장협회가 발표한 4분기 해외 여행상품 참고가격을 보면, 일본은 현지물가 및 공항세, 유류세의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상품가가 3분기 대비 5~10% 상승했으며, 한국의 경우 항공편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5~10% 낮아져 더욱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됨

⇒ (종합전망) 한국과 일본이 대만 해외여행 수요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정부가 인/아웃바운드 관광격차 축소를 위해 실시하는 국내여행 보조금 제도가 하반기 방한수요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한국 수요강세가 워낙 뚜렷하고, 하반기 방한시장은 ‘단풍’, ‘지역축제’, ‘겨울체험’ 등의 대만인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는 시즌이어서 현재의 상승세 유지를 조심스럽게 전망

3. 타이베이지사 '26.8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 3.1 2026년 하반기 여행업계 모객광고지원 실시(7~12월)
- 3.2 지방공항 연계상품 및 전세기 상품 특별지원 추진(7~12월)
- 3.3 항공업계 협업 방한 항공 프로모션 실시(7~12월)
- 3.4 'K-local 100' 캠페인 추진(중화항공·라이언여행사 협업)
- 3.5 Klook 및 여행사 공동 FIT 여행상품 프로모션 추진
- 3.6 '한국 중부관광의 해' 여행 후기 공유 및 사진공모전 추진
- 3.7 항공사-Pay사-유통사 협업 지방공항 FIT 활성화 통합 마케팅 추진
- 3.8 충청권 통합 대만 여행업계 팸투어 지원

※ 언론매체(연합보, 나우뉴스, 뽀바오, 자유시보, 중국시보, 뽀치, 공상시보, TVBS, 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관광서, 대만관광협회, 대만여행업품 질보장협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및 업계동향 등 종합. 끝.